



2½톤 중형표준차량 자체시험평가 장면



5톤 방탄킷차량 자체시험평가 장면

기아차 '육공트럭' 대체 군용차량 개발 나서

차세대 중형표준차량 개발 제안서 제출
177억 투자 2024년 광주공장서 생산
5t 방탄킷 차량 이미지도 공개



육공트럭으로 불리는 2½톤 표준 차량.

군부대 주변을 지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트럭이 '육공 트럭'이다. 이 육공트럭은 지난 1977년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군용차량 전문업체가 기아차 광주공장이기 때문이다. 기아차가 '육공트럭'을 대체할 차세대 군용차량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국군 차세대 군용차량 개발 사업인 '중형표준차량 및 5톤 방탄킷 차량 통합 개발용역'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표준차량과 5톤 방탄킷 차량 이미지도 공개했다. 사업 참여가 확정돼 개발이 완료되면 차량 생산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맡게 된다. '중형표준차량 및 5톤 방탄킷 차량 통합 개발용역'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2½톤과 5톤 군용 표준차량을 대체하고 5톤 방탄킷차량을 신규 개발하는 사업으로, 군은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약 177억원을 투자한다. 기아차는 2008년 중형표준차량 콘셉트 차량 제작을 시작

으로 자체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 참여를 위해 현대차와 긴밀하게 협업, 준대형 신형 트럭 '파비스'를 기반으로 한 중형표준차량을 개발해왔다. 최근 공개된 '파비스'는 경제성·실용성은 물론 넓은 적재 공간과 첨단 안전사양 등을 갖춘 신차다. 기아차가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표준차량에 ▲7리터급 디젤 엔진 및 자동변속기 ▲ABS 및 ASR ▲후방주차보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파비스'에 적용된 사양들을 대거 탑재된다. 기아차는 상품성을 바탕으로 ▲기동성 향상을 위한 컴팩트 설계 ▲4×4, 6×6 구동 적용 ▲전술도로 운영에 최적화된 회전반경 구현 ▲영하 32℃ 시동성 확보 ▲하천 도섭(渡涉)능력 강화 ▲야시 전용 차축 및 최신 전자파 차폐기술 적용 ▲프레임 강도 보강 등 기아차만의 차별화된 군 운용 특수사양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형표준차량과 마찬가지로 '파비스'를 기반으로 신규 개발되는 5톤 방탄킷차량은 강인한 디자인의 방탄 캐빈 및 적재함, 손쉬운 무기장착이 가능한 구조를 적용해 실전에서 높은 생존성 확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차는 이번 중형표준차량 및 5톤 방탄킷 차량 통합 개발용역 사업 참여를 통해 군의 기동성, 생존성 및 안전 운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 공급 운영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공급과 각종 설계 변경, 성능 개량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차는 그동안 다양한 군용차량 제작을 통해 기동장비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 육군에 최적화 된 소형전술차량을 개발해 2016년부터 실전에 배치해 왔다. 또 해외의 20여 개국에 2만3000대가 넘는 군용차량을 수출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겨냥 한 다양한 차량을 선보이는 등 국내외에서 군용차량 전문 생산업체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기술을 군용차량에 접목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군과 협업하는 등 우리 군의 미래 지상 전투체계 발전을 위해 군과 다각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막는다

검색 한번으로 실매물 정보 확인 '자동차365' 서비스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중고차 실매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물로 나온 중고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 여부, 실제 보유업체 및 연락처,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차 소비자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진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고차 업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자동차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뒤 방문객에게 비싼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상당수 업체는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 사진을 무단 복사해 자신의 매물로 올려놓고 싼 가격에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업해 소비자에게 중고차 매매조항이 보유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은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차365 실매물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모터스포츠 교육기부에 참가한 광주 도산초와 선운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29일 영암 F1경주장에서 모터스포츠 체험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 학생 초청 영암 F1서 모터스포츠 체험

광주 도산초와 선운중학교 학생들이 금호타이어 초청으로 지난 29일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모터스포츠 체험을 했다. 금호타이어는 2012년부터 모터스포츠에 대한 학생들의 친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터스포츠 교육기부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열린 '굴림픽(굴림+올림픽)' 대회에서 종합우승한 광주 도산초와 선운중학교 학생들이 초청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엑스타 레이싱 팀' 김진표 감독에게 모터스포츠 기초 교육을 받고 경주 차량과 드라이버를 직접 만나는 '그리드 워크', 경기장 서킷을 주행하는 '달려요 버스' 이벤트 등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레이싱 드라이버, 기계사 등 모터스포츠에서 빠질 수 없는 전문 직업군에 대한 소개를 받고 엑스타 레이싱팀이 출전한 '슈퍼레이스 ASA6000클래스 7차전 및 슈퍼바이크 결승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올해부터 '굴림' 브랜드와 사업으로 기획된 교육정책인 '굴림픽' 후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4월 광주 광산구-광주시교육 연구정보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굴림픽 대회에 필요한 페디타이어를 전량 지원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희망의 공방방 개실 후원, 진로체험 교육 기부, 핑크박스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그룹이 에어택시 시장 선점에 나섰다.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메가시티화로 도시 거주자들의 이동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물류 운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NASA(미국 항공우주국) 출신 신재원(사진) 박사를 영입했다. 현대차그룹은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UAM(Urban Air Mobility)사업부'를 신설하고, 미국 항공우주국 항공연구개발본부장을 지낸 신재원 박사를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UAM사업부를 총괄하는 신 부사장은 미래항공연구와 안전 부문 베테랑급 전문가로, NASA에서 30년 간 근무했다.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대차가 영입했다.

현대차, 에어택시 꿈꾼다

NASA 출신 신재원 박사 영입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부 신설



신 부사장은 1989년 NASA 산하 글렌리서치센터(Glenn Research Center)에 입사해 항공안전 및 항법 시스템 연구개발을 담당했다. 입사 19년만인 2008년 동양인 최초로 항공연구개발본부장으로 승진해 NASA의 모든 항공연구와 기술개발을 관리하는 최고 위치에 올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먼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항공기체 개발을 위한 형상설계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흔히 PAV(Personal Air Vehicle·개인항공기) 또는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전기 수직이착륙), 에어 택시(air taxi) 등으로도 불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는 항공기와 달리 수

물과 소리 그리고 바람

구례동편소리축제

제23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2019.
10. 3.(목) ~ 10. 6.(일)
서시천체육공원, 섬진아트홀 일원

10. 3.(목) 구례5일시장 거리공연	10. 4.(금) 국악인 추모제 개막제 「물과 소리 그리고 바람」
10. 5.(토) 젊은국악인 & 동편제 명인명창전 읍면농악 한마당, 호남여성농악 판굿	10. 5.(토) ~ 6.(일) 제23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주 관 구례동편소리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JeollaNamdo 구례로 ☎ 061)780-2726~7